

제 141호 수업 진행 요령 및 방법

진주보건대학의 최용혁 교수님께서 자신의 수업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해 항상 염두에 두고 실천하고자 하는 15가지 사항과 보충설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면상 보충설명은 일부만 전달해드립니다. 최용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업 진행 요령 및 방법

1. 출석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수업이 시작된다는 생각을 가진다.
2. 시계를 보지 않는다.(수업진행자가 시계를 자꾸 보게 되면 학생들이 초조해 하거나 선생님이 빨리 마치고 싶어서 시계를 본다고 생각하여 수업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다.)
3. 성인 학생의 경우 6-7분에 한 번 씩 관심이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수업 준비를 한다.
4. 수업 중 절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화를 내는 순간 수업진행이 어려워진다.
5. 판서는 왼 쪽부터 차례대로 학생이 볼 수 있도록 쓴다. (되도록 판서는 자제한다.) 판서를 하게 되면 수업의 흐름이 끊어지고 학생들도 다른 곳으로 관심을 두게 된다
6.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반드시 학생의 눈 높이까지 내려가서 진행한다. 보통 이 정도 수준이면 눈 높이다 싶은 지점에서 더욱 더 내려가도록 한다.
7. 수업이 항상 입체적으로 진행되도록 준비한다.(모노보다 스테레오가 듣기 좋듯이)
8. 시험은 수업시간에 강조한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고 채점 시에는 되도록 긍정적인 사고로 점수를 올려 줄려는 마음가짐을 가진다.
9. 이길 수 없는 지적은 애당초 하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는다. 학생이 기분 안 나쁘게 지도할 수 있으면 되도록 그쪽으로 지도한다. (예를 들면 수업중 모자를 쓴 학생을 억지로 벗기려고 하지 않는다.)
10. 학생을 지명하여 발표하게 할 때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다.
11. 학생들의 당일 수업의 성취도를 알고자 할 때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알겠습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한 학생을 꼬집어 묻도록 한다. 불특정다수에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보통 잘하는 몇몇 학생만 대답하게 되고 다른 학생들은 관심이 없어진다. 한 명씩 지적하여 물으면 나머지 학생들이 긴장하게 되고 파급효과도 커진다.

12. 어학의 경우 수업 중 많은 학생들에게 질문이나 발표를 시키게 되는데 가능한 한 뒤 쪽 학생위주로 시키고 앞쪽에 앉은 학생은 질문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수업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나 수업흐름을 종종 방해하는 학생들을 앞좌석으로 유인하여 보다 정숙한 가운데 수업이 진행되도록 한다.

13. 학생들이 떠들거나 자는 일차적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다기보다는 나에게 있음을 명심하여 항상 학생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한다. (세상 이치는 재미가 없거나 자기하고 상관이 없으면 졸리게 되어있다.)

14. 될 수 있으면 수업 중 관심 없는 학생을 나가도록 하거나 자게 해서 안 된다. 이것은 나 스스로 내 수업을 비하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책임 또는 무능함을 드러내는 결과가 되므로 가능한 한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도록 한다.

15. 수업 도중 모르는 사항에 직면했을 때, 또는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을 못할 경우에는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 없이 모른다고 대답한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체 한다든 지 하다가 시간을 끌면, 신뢰에 손상이 갈 뿐만 아니라 수업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며 모를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솔직히 모른다고 고백하고 언제 답을 주겠노라고 약속을 한다.